

어떻든 한편의 정치놀이판이 끝났다. 특이적인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 패러디가 난무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모서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일종의 놀이문화적 심리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지금의 패러디는 대체로 사회나 정치 풍자를 통해 대중들에게 직접적인 흥미를 자아내게 한다. 패러디란 원래 익살·풍자의 효과를 위하여 표현이나 문체를 자기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문학이나 음악, 미술 등으로 새롭게 창조해 낸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일정하게 구별되지만 대중성과 사회현상을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데 공감 있다.

최근에는 놀이 문화의 한 현상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종의 패러디 문화가 나름대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자와의 교류에 소극적이고 개방에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서 놀람게도 세계최고의 휴대전화 보유와 인터넷 강국이 된 것도 바로 전자매체로 이동해 간 놀이현상이 아닐까. 그 위력은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하다. 지난 총선 때 수많은 인파를 투표장으로 불러낸 것도, 그래서 온라인을 오르내리고 연결시켜 새로운 문화 현상을 창출한 것이 인터넷이고 그 속에서 패러디가 하나의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패러디 천하

일부 패러디가 장난기 넘치는 저급한 내용과 풍자를 담고 있더라도 우리 문화도 이미 자기만족 위주의 엄숙한 난해주의에서 벗어나 대중 속에서 패러디라는 이름으로 활력을 얻고 있다. 어쩌면 문화에서도 결국 강자가 살아남는 정률 법칙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문화시대를 살아가는 해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함 없이 일방적인 자신의 해석에 따라 대리만족을 얻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염려스럽기도 하다.

요즈음은 문화라는 독립된 단어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말 뒤에 붙여 쓰이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이다. 문화라는 단어를 대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가 좋든 나쁘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쇠퇴 소멸해 가는 문화를 굳이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호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서구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그냥 '쇼'라고 하는데 별 의미를 담지 않는다. 그들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도

자신의 작품을 그냥 '쇼'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쇼'라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쇼를 부정적으로 보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문화 즉 예술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문화를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차원 높은 예술적인 무엇에 감동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가 문화와 예술이 일반 사람들을 점차 멀어지게 만든다. 예술의 기원 중의 하나가 유희다. 어떤 문화현상이든 대중 속에서 융해되어지고 생활의 스트레스를 털어 버리고 새로운 창의를 얻으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패러디란 유희병 같은 문화현상이 비록 저급한 문화 배설물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나름대로 절대다수 대중의 공감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소셜이건 영화이건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먼저 의미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 수 있겠는지. 그런 점에서 패러디 현상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물게 해준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려 노후복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4월 23일 대내외에 공식 발표했다. 총무원이 승려 노후복지 기금 조성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05년도 교구본사별 기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이미 14개 사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불교계 자체 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운동의 전개는 당연한 일이다. 그 방법으로 보험금 나눔운동을 선택한 것도 매우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모아진 삼보 정재가 법답게 쓰여 지도록 하는 일이다. 이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사부대중이 이 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홍보와 의식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요, 일의 진행과정 자체가 다시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을

신심을 고취시켜 운동에 활력을 주도해 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제도에 의한 출가자의 노후보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의 많은 비리들과,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분규들의 밑바닥에는 노후에 대한 출가자들의 불안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청정승단 구현을 위한 근본대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여법한 성과가 불자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한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구현될 청정승단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많은 운동들이 즉흥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가 옹두사사가 되는 예들을 수없이 보아온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승려 노후복지의 문제가 너무도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의 운동을 통해서 원만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좌절이 주는 충격으로 인해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훨씬 뒤늦어지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태웅(한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공생의 선물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경>  
"여러 생명을 잡아매어 죽이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4월 21일 과천 정부청사 강당에서는 건설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명 평화 탁발 순례'를 하고 있는 도법 스님(前 실상사 주지)의 '생명 평화'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인간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자연은 정복의 대상인물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바로 생명위기와 공동체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윤택한 삶을 위해 개발이 마쳐 최고의 가치인양 여기고 자연의 파괴는 등한시한 결과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러 생명을 중히 여기라"는 말씀은 일체 생명의 가치가 차별되지 않는 세계를 이루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각종 개발의 최고 운상이라 할 수 있는 서울 도심에서 최근 도롱뇽 알 수만 개가 발견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롱뇽은 1급 수에 사는 특산종으로, 국립공원지역 등이 아닌 서울 4대문 안에서 많이 발견되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한달여 앞둔 이 시점에서 '정정한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훌륭한 선물'이라는 뜻을 새겨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도 수많은 도롱뇽들이 서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주일(해부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회법 제도' 방지위한 보완

<현대불교> 470호 1면에 실린 '소속에 시달리는 조계종' 기사를 읽었다. 조계종단의 문제를 사회법에 의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데 공감한다. 불교 집단의 전통과 관습이 있고, 거기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법에 의지하다보면 불교와 스님 스스로 위의를 해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법에 제소하는 스님을 해종 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법에 제소하는 원인이 불교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계종과 총무원 호법부가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사회법에 제소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권위적인 자세 보다는 종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나 제도의 미비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법원 기능을 하고 있는 조계종과 조사 기능을 갖고 있는 총무원 호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조계종과 호법부는 집행부나 일부 스님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정하지 않은 조사와 편파적인 판결이 내려진다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는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군법당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해주시길 기대한다.

따라서 총무원 부서로 있는 호법부를 호법원으로 승격시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조계종 역시 공정한 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경찰청 또는 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불교내부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마일(웃다뉴스)

군법당 실질적인 지원

군법당에 다니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자식같은 장병들이 좁은 공간에서 절을 하는 모습, 초코파이가 부족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장병들, 공양물을 올리지 못한 채 밥을 먹여는 모습...

같은 부대의 교회나 성당에 비교하면 더욱 초라해진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매주 인근 교회와 성당에서 온 위문단과 즐거운 종교활동 시간을 갖고 있지만, 법당은 기껏해야 1년에 2-3차례 뿐. 이런 상황인데도 매년 법당으로 오는 장병들이 기특하기까지 하다.

조계종이 군승특별교구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군법당에도 보다 많은 지원이 뒤따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군법당 관련 '종단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다.

군법당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후원해주시길 기대한다.

조순재(경기 기행군 가평읍)

불자원의 감소의 한 이유

선배 중에 현역 국회의원 한 사람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불교신자이고, 본인도 신심이 돈독한 불자입니다. 시간이 나면 함께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절에 갑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총탄에 있는 절에서 1만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가 개신교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끔 나가 개신교신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청취합니다.

하루는 그 선배에게 불교를 믿으면서 왜 개신교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교회에 나가는지 물어 봤습니다. 대답을 듣는데 안타깝더군요. 불자들은 후보자들의 종교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만나면 제일 먼저 종교를 묻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다르다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정치인으로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가고 개신교를 믿는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안타깝고 화가 나더군요. 우리의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불자국회의원 적은 이유(웃다뉴스)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회대외경제처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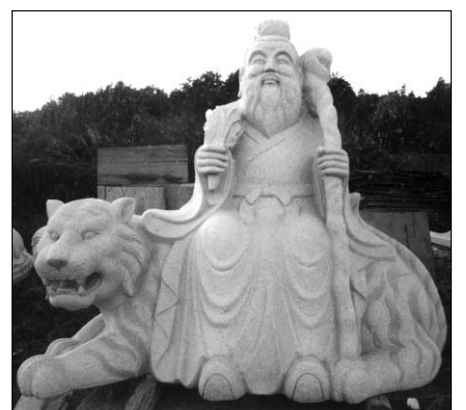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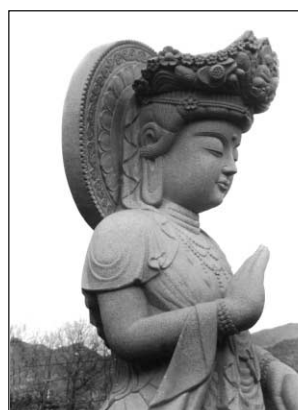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